

지역 소식통

고창군, 5월 청소년의 달  
다채로운 행사 열려

고창군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스포츠와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21일은 고창읍성 야외공연장에서 2022년 청소년의 달 기념 어울 한마당 두(DO) 달(YOUTH) 노(KNOW)가 열린다.

지역 청소년 동아리 7개팀과 초창팀 3개팀 등 총 10개팀이 합창, 랩 밴드, 브레이크 댄스, 방승댄스 등 공연을 선보이며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21일과 28일에는 제8회 지방선거를 맞아 청소년문화센터와 고창고에서 '청소년 모의 투표 행사'도 계획돼 있다.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양치영 소장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그동안 움츠렸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간담회

부안군은 18일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 농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역시설 설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교육에는 관내 양돈농가 18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부·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태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현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시 주의 및 협조사항을 안내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적으로 양돈농가에서 21건, 야생멧돼지에서 4471건이 발생하는 등 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설 설치중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 정보 교류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모든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에 맞추어 31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탄소저감 · 과학영농 실현

## 정읍시, 토양분석 연구사업... 튼튼한 토양 만들기 '박차'

정읍시가 탄소 저감 농업 실천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토양분석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토양분석 연구사업은 토양 내 영양상태를 확인해 적정량의 시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경지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특히 농경지의 양분분포와 비옥도 변화 확인을 통해 부족한 비료 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면 농작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토양 염류집적도 예방할 수 있다.

올해로 4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2019



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100여 점을 분석했다. 올해는 논, 밭, 과수원 등

토양특성(광탄, 비광탄)을 고려해 대표 필지 705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항목은 토양산도와 유기물, 유효인산, 이온성 양이온(칼륨,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EC) 등이다.

토양분석 결과는 토양환경 정보시스템인 휴토랩(http://sil.rda.go.kr)을 통해 누구나 지역별로 실시간 농경지의 양분분포와 비옥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구사업의 결과는 비료 절감을 위한 농업정책 수립 자료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관리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축분액비, 농약 잔류 분석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보건소, 2022년 국가암검진 집중 홍보 실시

### 암 조기 발견 · 치료 통해 사망률 줄이기 위해 두 팔 걷어

고창군보건소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통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2022년 국가암검진 홍보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마을 경로당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국가암검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미수검자에 대해 1:1 전화 폭려, 안내문자 발송, 암 검진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현수막 게시, 지역 대중매체인 전광판을 이용, 연중 국가암검진 홍보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은 검진 활성화를 위해 전하

홍보 고창군청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가암검진 사업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국가 암 검진은 '씩수연도' 출생자다. 검진 대상 암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6종이다. 특히,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남녀 모두가 해당된다.

수검률이 저조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12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수검홍상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만 50세 이상의 대장암 검진대상자는 대장내시경이 아닌 '분변잠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관내 37개 보건기관 민원실에 체변통을 놓아 두고 지역주민이 쉽게 검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확산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며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능하니, 검진 대상자는 연말까지 꼭 검진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불공정 여론조사 진실 드러나 '유감'

유기상 후보 선거사무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7일 간격으로 진행되었던 여론조사의 결과가 14% 차이를 보였는데, 어떻게 1주일 사이에 여론의 추이가 14%가 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제기하였던 '불공정 여론조사', '여론왜곡'이 사실상 진실로 드러난 것 같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2월 13일에도 조사되며 국제뉴스) 발생하였는데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는 일' 고창에서 일어나 안타깝고 군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 생각한다"며 "이는 특정 학생에게만 답안지를 알려주고 대학에 입학시키는 경우와 같다"고 비판하였다.

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반복된 여론왜곡 의심 정황과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각각 문제시되는 여론조사는 전복 14개 시군 합동 여론조사 1주일 전에 실시, ▲ 여론조사 예정일을 특정 후보는 알고 유기상 후보는 사전에 모른 채 실

시, ▲ 여론조사일 전에 성명불상 유령폰으로 지방문자 발송, ▲ 다자대결 결과가 동일하게 15%대 차이 ▲ 그 다음 주 14개 시군 합동 여론조사 결과 동일하게 1%대 차이 등이다.

유기상 후보는 "4년 전 민선 7기 선거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25% 이상 격차로 뒤지고 있었지만 군민들의 선거혁명으로 개표결과 3% 앞서 당선 의 영예를 안았다"고 강조하며 "투표일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씩 지지율을 올릴 각오로 선거운동하여 15% 이상의 압도적 승리로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선대위에 후보 직속으로 청년들을 위한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유성근)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년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 "청년이 정읍의 미래"

###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대위에 직속 청년기구 설치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선대위에 후보 직속으로 청년들을 위한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유성근)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년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밝힌 청년 공약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정읍 정착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을 자가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여 자가형의 경우에 법적 기준 내에서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이자율 연 300만 원까지, 최장 10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임대형의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대학을 활용하는 맞춤형 인력양성과정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의 청년층이 고향을 등지는 것을 막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선대위에서 미래세대위원회를 직속으로 둔 것은 이 후보가 '장차 정읍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 청년들의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정읍시민단체인 정읍동학시정감시단과 서남저널이 공동 주최한 '정읍시장 후보 3인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강조하면서 청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각종위원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위원을 확대하기로 공약했으며, 보육정책 강화도 청년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아동 친화 도시 정읍,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정읍시가 사회 진출에 첫발을 내딛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선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다담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다담씨앗통장)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아동 자선형성 지원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지원 준비 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정부 부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1:1 → 1:2)로 상

향 조정했다.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호 대상 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 등)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급여) 가구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지원한다.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 대학 학자금과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특정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